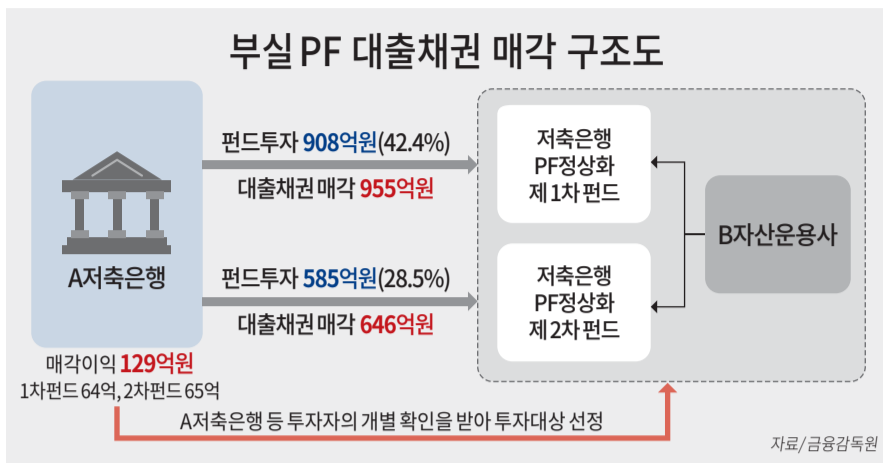


PF 부실채권 ‘꼼수매각’… 순익 129억 부풀리고 연체율 낮춰

금감원, 상상인저축은행 수시검사 계열사 오하자산, 부실이연 조력 전분기비 연체율 2.6%p 떨어져 건전성 ‘양호’ 착시현상 일으며 “상상인, 기본질서 훼손 엄정조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셀프 매각’해 재무제표상 당기 순이익을 129억원 늘리고 연체율을 낮춘 상상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주문자위탁생산(OEM) 펀드’를 운용하면서 저축은행의 부실 이연을 조력한 자산운용사도 발각됐다.

금감원은 부실 PF 대출채권 매각이 많았던 상상인저축은행과 계열 펀드 운용사인 오하자산운용사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9일 밝혔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6월 오하자



산운용의 1차 펀드에 908억원을 투자했다. 계열사를 포함하면 투자금액은 총 1945억원으로 펀드설정액의 90.9%에 달한다. 이후 상상인저축은행은 자신의 부실 PF 대출채권을 대출원금에서 총당금을 뺀 ‘장부가액’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매각이익 64억원을 인식했다. 계열사까지 합치면 매각이익은 151억원으로 증가한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8월에도 오하자산운용의 펀드에 부실 사업장을 매각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오하자산운용의 제2차 펀드에 585억원을 투자했다. 계열사를 포함하면 규모는 1017억원으로 늘어나며 이는 펀드 총설정액의 49.5%에 해당한다. 이후 원금 715억원에 할인율 9.7%를 적용한 646억원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했으며 매각이익으로

65억원(계열사포함시 79억원)을 인식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이러한 방식으로 오하자산운용사가 설정한 2개의 ‘저축은행 PF 정상화 펀드’에 투자하면서, PF 대출채권을 펀드수익증권으로 대체돼 매각 시점에는 사실상 PF 대출채권을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었다. 그 결과 6월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2.6%포인트 하락해 연체율 등의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착시 현상을 일으켰다.

또한, 금감원 측은 오하자산운용은 자신이 운용하는 ‘OEM 펀드’를 운영해 상상인저축은행 부실 이연에 조력했다고 밝혔다. OEM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불건전영업행위로,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운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오하자산운용은 PF 대출채권 매입

과정에서 별도 실사 절차 없이 최대 4년 전의 대출취급 시점 감정평가 금액을 사용했다. 이렇게 산정한 외부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해당 펀드가 PF 대출채권을 고가에 매입하게 됐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에 이미 발생한 대손충당금 환입분을 유가증권(수익증권)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도록 지도하고,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착시효과를 제거할 방침이다. 더불어 B자산운용의 OEM 펀드 운용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OEM 펀드를 설정·운용함으로써 펀드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엄정조치를 예고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OEM 펀드 등을 활용해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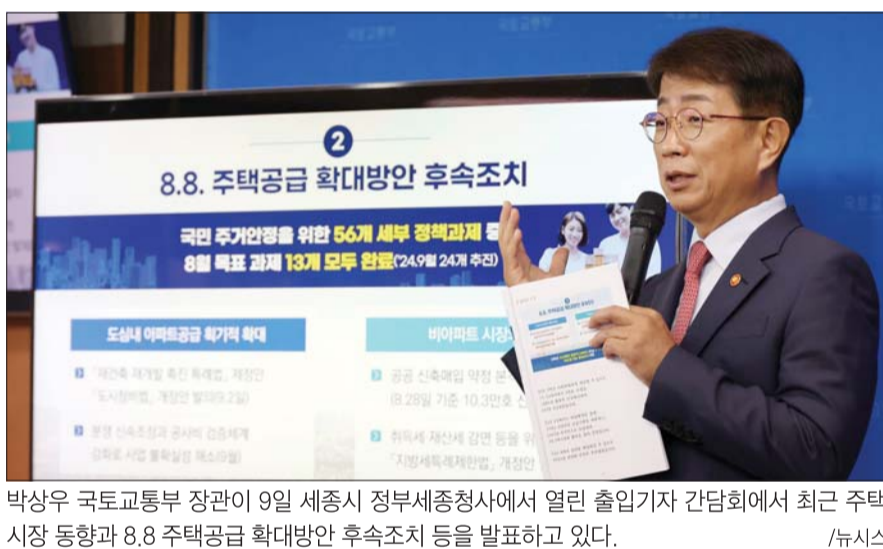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등 분위기 진정”

국토부, 8·8공급대책 한 달 “8월 둘째주 주간상승률 0.32% 지난해에 0.21%까지 떨어져”

8·8 공급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분위기가 진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8·8주택공급확대방안 발표 이후 한 달을 맞아 진행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공급대책을 발표한 8월 둘째주 당시 0.32%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이 0.28%, 0.26%에 이어 지난해에는 0.21%까지 떨어졌고, 거래량 역시 8월 둘째 주를 정점으로 어느정도 둔화하고 있다”며 “원인은 속단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는 진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서울과 경기도 인기 지역 내 신축 아파트 위주로(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은 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많이 쌓여있고,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인기 지역이 아닌 곳은 가격이 급등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현재의 시장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통화량이 들어갔던 노무현 정부 시절이나 코로나와 공급부족이 맞물린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공급대책인만큼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8·21가계부채관리방안은 당장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과 함께 수요를 규제해 시장 참여자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았을 것”이라며 “8·8 공급대책은 장기적으로 수도권 내 좋은 위치에 좋은 품질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약속을 드리는 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책에 따라 시장에 (주택

이) 공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를 염두에 두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판단할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리고 실제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8·8대책을 발표한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 “재건축·재개발 특례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통상 14년 정도 걸리는 정비사업을 6년 정도 단축할 계획”이라며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수출 호황에도 ‘내수부진’ 경기개선 제약”

KDI, 경제동향 9월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내수 부진 진단이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연속으로 이어졌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9일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수출 호조에도, 소매판매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하는 등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정부 측 분석과 상반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8월호’에서 내수가 살아날 조짐을 보인다고 평한 바 있다.

9월호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은 견실한 회복 흐름

을 지속했다. 그러나 소매판매와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돼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쳤다. 7월 전산업생산(0.5%→2.7%)은 기저효과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건설업이 부진하고 제조업도 조정되면서 계절조정 전월 대비로는 0.4% 감소했다. 상품소비는 위축이 장기화하고 있다. 서비스 소비가 증가세를 보였지만, 폭이 완만해 전체적인 미약한 소비 흐름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상품소비를 반영하는 7월 소매판매(-3.6%→-2.1%)는 신제품 출시로 판매가 크게 늘어난 통신키기·컴퓨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품목에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서비스 소비도 정보통신업(2.9%→5.0%)의 생산증가세는 확대됐으나, 숙박·음식점업(-1.0%→-3.0%),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1.2%→-0.7%) 등의 생산이 줄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임종룡, 금융위원장 만남 성사 초미 관심

» 1면 ‘흔들리는 100년 은행’서 계속

당시 손 전 회장의 연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금감원장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공식석상에서 얘기했고, 이후 “조용병 회장은 3연임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후배에게 기회를 주시는 걸 보면서 리더로서 개인적으로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하면서 손 전 회장의 용퇴를 압박했다.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도 “소송 논의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며 손 회장이 중징계를 수용하고 연임 시도를 자제하라고 압박했다. 현재 임 회장을 향한 금감원의 입장과 과거 손 전 회장을 향한 금감원의 기류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임 회장의 만남이 성사 될 경우 자진사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또한 2010년대 이후 문제를 일으킨 경영진들이 자진 사퇴했다는 점도 임 회장의 사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2017년에는 이광주 전 우리은행장이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지난 2018년에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로비 사건으로 사퇴했다. 앞서 손 전 회장 역시 라임펀드 사태를 책임지고 용퇴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금융당국에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말”이라며 “우리는 행 이사회내부에서도 현재 임 회장의 거취를 두고 많은 생각에 잠겨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올해 교내 담폐이크 성범죄 피해 434건

교육부, 350건 수사외뢰 피해학생 588명 등 총 617명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 착취물이 대거 유포돼 논란이 된 가운데, 학생 및 교직원 피해 신고가 올해 400건을 넘어섰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학교 담폐이크 성범죄 피해 조사

결과 238건이 추가 접수돼 올해 누적 434건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담폐이크 허위 합성물 피해 관련, 학생·교직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피해현황을 조사·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6일까지의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로, 이 기간 총 23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현진 기자 lhj@